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5

2003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민수기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대한예수교
총회
충현교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5

2003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민수기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기도제목

1. 우리 가정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고 그 복음을 따라 행하며 전하게 하소서.
2. 우리 교회가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모든 교회 일꾼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4.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이를 통해 교구가 성장하여 교회가 진정한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
5. 새벽기도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욱 힘있게 하시고, 5부예배를 통하여 젊은 일꾼들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게 하소서.
6.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저희를 써 주소서.

5월의 향기



5월의 햇살을 가득 담은 꽃들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타고 전해지는 꽃의 향기는 마음까지 스며듭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네 기름이 향기로와 아름답고
네 이름이 쏟은(purified)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아 1:3)

그리스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향기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향기는 죄로 인하여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우리네 마음을 정화시키고 또 정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처럼(마 26:7), 자신을 깨뜨리신 그리스도는 세상
에서 그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향기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엡 5:2)

5월의 화사한 꽃들이 우리의 두 눈에 아름다움으로, 코 끝에는 향기로움으로 다
가오듯,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에 아름다움과 향기로움으로 다가오시는 날들
을 기대해 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고, 오직 믿음으로 느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빛과 향
기가 마음을 세상에 빼앗긴 이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보니
다.

2003년 5월을 맞이하며

위임목사 김 성 관

민수기 서론

본 서의 한글 제목 '민수기(民數記)'는 '백성의 수를 세었다'라는 뜻이다.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본 서가 '광야에서'라는 뜻의 '베미드바르'(Bemidbar)라는 제목으로 쓰였다. 실제로 민수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백성의 인구수 통계는 1장부터 4장까지와 26장에 한정되어 있을 뿐, 그 외의 모든 내용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과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으로 되어 있다. 즉, 민수기는 시내산에서부터 시작하여 가나안 접경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민수기의 저자와 저작 연대는 어떻게 될까? 민수기에는 "여호와가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또는 "모세가 그들이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라는 표현이 80회 이상 나타난다. 이것을 볼 때 민수기의 저자는 모세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연대가 주전 1446년으로 추정되고 모세의 사망연대가 주전 1407년으로 추정되므로, 민수기의 저작 연대는 주전 1447년부터 주전 1407년 사이였을 것이다.

특별히 민수기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다음 세 가지다.

첫째,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깊이 부패해 있는지를 주목해 보아야 한다.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 매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 반석의 물 등 하나님의 은택을 끊임 없이 누리면서도 탐욕, 불평, 원망, 불신앙 등의 죄를 끊임없이 범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했다. 민수기를 읽다보면 '어떻게 정말 이렇게 쉽게 하나님을 잊고 배은망덕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아심이 저절로 생긴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서 행하고 있는 것을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매함과 부패함은 곧 우리 자신의 우매함과 부패함을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민수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매함을 손가락질하는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죄악됨과 부패함을 다시금 처절하게 깨닫고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부패한 죄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주목해 보아야 한다.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거듭되는 불순종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뿐만 아니라, 진노 가운데서도 그들을 용서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도 있다. 특별히 20장에 기록된 '반석에서 솟아난 물'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되고, 21장에 기록된 '숫뿔'은 요한복음 3장 14,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관되어 해석되며, 35장에 기록된 '도피성'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模型)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외에도 민수기의 여러 곳에서 우리는 예수 그

리스도를 보게 된다. 그러므로 민수기를 읽어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맛보도록 하자.

셋째,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순례하는 동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행복의 길임을 주목해 보아야 한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잠 16:20). 하나님을 믿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들 모두가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는 사실을 거룩한 두려움 가운데 읽도록 하자. 그리고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 및 비참한 결말을 거울로 삼아 우리 자신에게서 모든 불신앙과 불순종을 제거하도록 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광야 방랑기를 오래 전에 책으로 기록하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읽으며 영적 교훈을 얻게 하시는 이 은혜를 경홀히 여기지 말고 이 책을 열심히 읽도록 하자. “저희(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고전 10:11). 한 걸음 더 나아가, 철저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온전히 순종하도록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도록 하자.

내용분해

제 1부. 시내산에서의 행군 준비(1장-8장)

1. 제 1차 인구 조사(1장-2장)
2. 레위지파의 인구 조사와 직무(3장-4장)
3. 정결규례, 손해배상, 간음 등에 관한 규례(5장)
4. 나실인의 규례 및 아론의 축복(6장)
5. 족장들의 봉헌(7장)
6. 성막의 등불과 레위인의 정결 규례(8장)

제 2부. 가나안을 향해 행군함(9장-19장)

1. 유월절을 지키고 출발함(9장-10장)
2. 음식에 대한 원망 및 모세를 비방함(11-12장)
3. 가나안에 정탐군을 보냄(13장-14장)
4.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시행될 제사법(15장)
5. 고라 당파의 모반과 멸망(16장-17장)
6. 레위인의 직무와 봉사 및 정결법(18장-19장)

제 3부. 요단강 동편에서(20장-25장)

1. 므리바에서의 반역과 애들의 방해(20장)
2. 놋뱀 사건 및 아모리왕 시혼을 공격함(21장)
3. 모압왕 발락과 발람(22장-24장)
4. 백성의 타락과 형벌(25장)

제 4부. 가나안 정복의 준비(26장-36장)

1. 제 2차 인구조사(26장)
2. 기업 상속 규례 및 여호수아의 소명(27장)
3. 절기와 서원에 대한 규례(28장-30장)
4. 미디안 정복 및 요단동편 분할(31-32장)
5. 출애굽 이후 모압까지의 노정 회고(33장)
6. 가나안의 경계를 정하고 토지를 분배함(34장)
7. 레위인들의 성읍과 도피성 제도(35장)
8. 여자들에 대한 상속 규례(36장)

민수기 4장은 레위인들의 직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20절은 고핫 자손들 중에 성막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자들의 직무를, 21-28절은 게르손 자손들 중에서 성막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자들의 직무를, 29-33절은 므라리 자손들 중에 성막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자들의 직무를 기록하고 있으며, 34-49절은 레위지파의 수효와 총수한 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 장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민 4:3)라는 말씀에 따라서, 레위 지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성막 봉사만 할 사람들을 선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레위인 자손이어야 했으며, 선출된 사람에게는 성막에서의 사역이 각각 분담되어 있고, 모든 사역을 아론의 명령에 따라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주의 명하시는 대로, 맡겨진 각 사람의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와 기구를 메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사 52:11)라는 말씀처럼, 성소에서 일하는 자는 정결해야 하고, 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특히 고핫 자손은 ‘회막 안 지성물에 대하여 일할 자’로서, 언약궤(중거궤=법궤)를 지키고 메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때에, 고핫의 자손이 아닌 자가 궤를 운반했고, “성물은 만지지 말찌니라”라고 했는데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으므로, 하나님의 진노의 치심을 받아 궤 곁에서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행해야 합니다.

맡겨진 직무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②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하기 전에, 인구를 조사하고, 레위인의 역할(임무)을 정한 후 진영의 부정한 자를 분리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부정한 것을 씻음 받아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5-10절까지는 죄의 보상(변상)에 관한 기사입니다. 본문은 사람에 대하여 범한 죄도 여호와께 패역한 것으로 보고 '자복' 하여 갚을 것을 명하며 죄의 배상 이외에 하나님 앞에서의 '속죄'를 필요로 함을 말합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만 용서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죄에 대한 배상을 하는 것은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사람에게 사죄하고 변상한다 해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께 패역하는 것이므로, 먼저 하나님의 길(방법)을 따라 사함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11절 이하에는 의처에 대한 예법이 나오는데, 남편이 아내의 정조를 의심하는 경우에는 성막에서 가져온 거룩한 물을 마시게 함으로써 판결을 하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그 여인이 범죄했으면 물이 몸속에 들어가 쓴 맛을 내어, 몸에 저주를 가져오도록 되어 있습니다(17-22, 27-28). 여기에서 우리들은 부부간에는 조금의 의심도 없어야 한다는 것, 은밀한 사건은 하나님 앞에서만 참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성결케 하는 거룩한 물이, 죄 있는 자에게는 저주를 가져오게 하는 쓴 물이 되듯, 성령은 죄를 숨기고, 은혜를 거절하는 자를 심판합니다(잠 28:13).

모든 죄를 완전히 내려 놓으십시오.

기도 제목 / ① 매 순간 성령님께 이끌리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 이 복음만을 전하는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나실인이란 ‘떠난 자’, ‘분리된 자’, ‘성별된 자’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몸을 성별하여 헌신한 사람을 말합니다. 부모 또는 본인의 의사를 따라 어떤 목적을 위해 서원하고 일생 동안 또는 어떤 기간 동안 절제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하는 것인데, 삼손, 사무엘, 세레 요한은 일생동안, 바울은 어떤 기간 동안 서원을 했었습니다.

본 장은 일정 기간 동안의 나실인의 율례를 다루는데 특별히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날’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속과 타협하지 않고, 특별히 성별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음을 표현합니다. 나실인에게 있어서 거룩을 위한 세 가지의 금지조항은 금주와 머리털을 자르지 않는 것과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금주는 자신의 삶을 절제하고 죄의 쾌락을 탐닉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머리털을 자르지 않고 길게 자라게 하는 것은 자신이 성별된 정결한 자임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며,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시체에 닿으면 몸이 부정해지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결케 되었기에 그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롬 12:1-2). 말씀이 나실인 서약을 통해서 구별된 삶의 표지를 보여 주었던 것처럼,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 구원 받은 자로 헌신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나실인으로 부름 받은 자들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수 있게 하소서. ②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담당자들 에게 기쁨과 감사와 준비된 헌신이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6장과 7장의 중심단어는 '분리(성별) 및 헌납(헌신)'입니다. 이 두 장을 좀 더 세분하여 중심단어를 찾아보면 분리(6:1-12), 겸손(6:13-21), 축복(6:22-27), 헌납(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6장과 7장은 선택받은 성도의 성령 충만한 생활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별과 헌신의 생애의 중간에는 성부, 성자, 성령의 축복이 놓여져 있습니다(6:22-27).

7장을 다루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분리(6장)가 있는 후에 봉헌예물(7장)이 그 뒤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예물은 그것을 정결(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는 속죄제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에 근거하여 드려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예물은 가인의 제물처럼 열납되지 못합니다. 한편, 회막의 봉헌식에서는 각 지파의 족장들이 먼저 각 지파를 대표하여 회막과 그 재료 기구를 운반하기 위한 수레 및 소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제물용 금은 기명 및 희생제물을 위한 짐승들을 12인이 매일 한 사람씩 같은 수량의 예물을 드렸습니다(10-13). 이는 '단의 봉헌 예물'이라 불렸습니다(84절). 여기에 기록된 헌물은 각 지파의 족장이 백성을 대표하여 임의적으로 드린 것으로 율법이 명하고 있는 것 위에 더하여 드린 것입니다. 참으로 은혜에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 드리기를 좋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고후 9:7).

여러분은 무엇을 예물로 드립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까? 삶을 전부 드리며 준비된 마음과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시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의무가 아니라 성도의 특권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소서. ② 충현 교회가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처음 몇 절을 제외하고는 레위인의 성별식을 기록한 것입니다. 본래는 장자를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 있었으나, 레위인이 장자의 대신으로 선택되어 봉사하는 것입니다. (레위인의 직무는 3장과 4장 참고)

레위인의 성별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그들은 성별되기 위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회중 가운데서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 사람들의 안수를 받은 후 제물로써 드려졌습니다(1-11절). 그와 동시에 레위인을 위한 속죄물이 드려져야 했죠. 그것을 통해서 레위인은 여호와와의 것이 됨으로써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수가 있었습니다(12-15). 지금도 하나님의 사역(일)을 하려는 자는 먼저 성별되어 하나님의 것(소속)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결케 되는 일과,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 그리고 그들을 위한 속죄가 필요합니다. 본 장의 가르치는 바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장과 관련지어 본 장을 읽으면 레위인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되고, 성결에 의해 무장되고, 사랑에 의해 임명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택함 받아 임명된 레위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에게 봉사해야 합니다. 한편 본 장 처음에 기록된 큰 등대는 우리가 늘 성령의 빛으로 인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성별된 레위인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등불을 비추게 하소서, ②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입술의 고백을, 15절에서 23절까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의지적인 복종을 암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양의 피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거룩하신 뜻대로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스스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피로 인한 구속은 양심을 정결케 하고 영혼을 회복케 할 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노래와 즐거움도 불러넣어 줍니다. 사람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죽할 정도의 성결에 결코 도달하지 못합니다. 유월절의 어린양,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보시고, 광야의 여행 중에 그들과 함께 하셨으며, 가나안의 복된 땅(복지)에 그들을 정착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범죄한 때에도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양육하셨습니다. 한편, 15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에 대한 복종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된 자를 인도하십니다. 성막 위에 있었던 구름과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징으로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그들 위에 더해져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전진하든지 물러서든지,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우리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을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전진해야 할 때 쉬거나 그쳐야 할 때에 앞으로 나아가는 일은 모두 불순종이요, 죄입니다.

우리도 성경에 명시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령의 빛 가운데 행동해야 합니다. 주님까지도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고 매사에 아버지의 뜻대로 했습니다(요 17:4). 절대 신뢰가 있는 곳만이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매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② 당회원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서부터는 가나안을 향한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행군이 시작됩니다. 먼저 전반부(1-10절)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효율적으로 통솔하기 위하여 은나팔을 만들게 하시고 그 사용규정을 지시하셨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백성을 세부적으로 통솔하기에는 모자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각적인 인도와 함께 청각적으로도 백성을 인도하기 위하여 나팔을 주셨습니다.

중반부(11-28절)에는 백성의 행군 진영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은 바란 광야에 이르기까지의 백성들의 행군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서와 방법대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점은 성막 기구와 성물을 멘 레위지파의 위치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각 지파 사이사이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 중심, 성막 중심의 신앙생활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부(29-36절)에서는 모세가 미디안 사람인 처남 호바에게 동행을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수고와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행군의 중심이 된 언약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모세는 언약궤가 떠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비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35-36절).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백성이 되었습니다.

기도 제목 / 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소서. ② 모든 예배와 집회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시내산에서 가나안으로의 수일간의 행군 도중에 발생한 두 번의 불평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로 하여금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이나 자세가 되어 있었는가’ 하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 인간의 부패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본 장 1절에서 3절에는 ‘다베라’에서의 불평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베라에서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진 가운데 내렸던 것입니다. 4절에서 35절까지는 만나 불평사건이 나옵니다. 백성 중의 일부가 탐욕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만나에 대해 불평하며 백성들을 선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기를 먹게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모세는 이 일로 인하여 괴로워하며 기도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영적 지도자의 고민과 갈등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모세를 위해 백성 중에서 장로 70명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사 영적인 권위를 주셨습니다(25절). 한편 하나님께서는 탐욕을 품은 백성들에게 메추라기 떼를 보내 주셨습니다. 그러나 탐욕으로 고기를 먹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벌을 받았습니다(33절).

적은 소득에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지만 많은 소득에도 감사할 줄 모르고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면 물질은 도리어 재앙이 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골3:5).

기도 제목 / ① 삼가 모든 원망과 탐심을 버리고 법사에 감사하게 하소서. ② 교회 직원들이 선한 청지기로서 말은 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지도자들 간에 생긴 불미스러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방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한 일로 인하여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함으로써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의 지도권에 도전한 것입니다(1절).

그런데 사실 모세의 행한 일은 죄가 될 만한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을 제외한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지 않았습니다(출 34:16). 그러나 미리암과 아론은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자 중에서 아내를 얻은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신앙의 순수성이 과연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혈통의 순수성이 아니라 영적인 순수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미리암과 아론은 이 일을 빙자하여 모세의 영적 지도권에 도전했습니다. 이들은 모세의 일을 문제삼아 지도자의 권위를 실추시키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모세를 변호하시고 미리암과 아론에 대하여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미리암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문둥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사건의 주동자가 아론이 아니라 미리암이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이 사건을 공정히 판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비방이나 무고한 자로 인해 곤경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의탁하고 온유함으로 묵묵히 인내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곤경 중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납니다(롬13:1-2).

기도 제목 / 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게 하소서. ② 교회 일꾼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이스라엘이 38년 동안 광야를 유랑하게 될 원인이 된 사건의 전후 사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행군을 시작한 이스라엘 민족은 마침내 가나안의 남부 경계선인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가나안으로 진군해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신 1:21).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신 1:22). 그들은 가나안땅 정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2지파 중에서 1인씩 선발하여 정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40일간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 일어났습니다. 정탐자들의 보고가 서로 엇갈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같이 그 땅의 풍성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과연 좋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인 열 사람의 보고는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곳의 강하고 견고한 성읍과 거민을 보고 겁이 났습니다. 열 사람의 보고는 그들이 이스라엘보다 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거짓과 불신앙에 사로 잡혀 가나안 정복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열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갈렙의 믿음의 보고는 무시되고 묵살되었습니다(30-31절).

이들 다수의 부정적인 보고는 이스라엘 전체 회중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이들 몇 사람의 불신앙적인 보고때문에 가나안 정복의 계획이 연기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믿음 없는 다수가 아닌 믿음 있는 소수의 편에 서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가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역을 전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로 광야를 지나 마침내 가나안 땅의 목전에 당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그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땅은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들은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를 거역한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해주신 것을 무색하게 하는 악한 말들을 내뱉고 있습니다(2-3절). 그들은 지금까지 저들을 인도한 모세를 끌어내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까지 했습니다(4절).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불순종과 불신앙이 얼마나 끈질긴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무조건적인 용서와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로 가나안 땅을 상속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23절). 출애굽 세대 중 이십 세 이상의 어른들은 모조리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29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를 유리하는 벌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싫어버린 바 되었습니다(34절).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고후 6:1). 하나님의 구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믿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소서. ② 찬양대원들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영적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앞 장에서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를 유랑하는 심판을 선고 받은 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 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간의 유랑 기간을 생략하고, 그 대신 레위기 1장에서 7장 사이에 언급된 율법을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기록 목적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보여주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다시 주신 것은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서도 제대로 믿고 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차 약속의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를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본문의 구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1-31절)와 안식일 규례(32-36절),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의 구별됨(37-41절)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강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참된 교제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타국인에게도 동일한 제사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13-16절). 이것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민족의 차별이 없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여러 제사제도 가운데 속죄제의 규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22-31절). 죄는 단체와 개인을 부패케 만들고 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인간이 완전하지 못한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속죄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죄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양 제물이 되십니다(요1:29).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천국일꾼 양성에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는 고라와 그 일당이 모세와 아론의 지도자적 위치에 대해 반역을 일으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고라, 르우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 그리고 벨렛의 아들 온이 아론의 제사장직과 모세의 지도권을 차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라 무리를 단호히 심판하심으로써 아론과 모세의 권위를 확고히 하셨습니다(31-35절). 한편, 고라를 중심으로 반역의 무리가 일어났을 때 모세는 흥분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오직 기도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입니다. 모세의 이러한 태도는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4-11절). 이튿날 이스라엘 회중은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치 않는 그들에게 염병이라는 무서운 형벌을 내렸습니다. 이 때 모세는 아론에게 명하여 급히 향로에 향을 피워 백성들 사이에 서도록 했습니다. 곧 속죄의 향연을 피운 것입니다(46절).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는 가라앉고 염병은 그쳤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죄를 위해 속죄의 기도를 올리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연상시켜 줍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심판의 염병으로 죽지 아니하고 이처럼 살아 있는 것은 자신을 희생시켜 위험을 무릅쓰고 염병 가운데로 오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덕분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이제는 영적 무지에서 깨어나 정녕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좇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중보자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씻기 위해 하나님께 속죄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기도 제목 / ①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귀히 여기게 하소서. ② '단기 선교'를 위해 모든 교구원들이 믿음으로 준비하며 협력할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고라 일당의 반역과 멸망 이후에도 아론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무리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아론의 제사장 집분의 정당성을 확증해 주시려고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게 하고 살구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과 불평을 막기 위한 표징이었습니다. 동시에 오직 하나님만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요, 생명을 얻게 하시는 능력의 신이시며, 항상 깨어 있어 인류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명확히 보여주는 표징이었습니다. 더욱이 이것은 영적으로 생명력을 얻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심을 깨우쳐 주는 이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깨어 계셔서 인류의 생명과 구원을 위해 힘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와 부패와 분쟁으로 찢든 인류가 새롭게 소생하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유일한 해답은 바로 화평과 생명의 근원이시요, 모든 죽어 있는 존재를 소생시키는 신령한 능력을 지니신 주님이십니다. 실로 주님은 찢어지고 깨어진 인간관계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 속에 진정한 평화를 선물해 주시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죽음 같은 절망에 휩싸인 영혼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죽어 있는 존재를 소생시키는 신령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지도자를 믿고 잘 따르게 하옵소서. ② 남녀 전도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아론의 제사장직에 도전한 고라 일당 사건의 연장선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론 가문의 제사장 직무와 일반 레위인들의 직무를 분명하게 규정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론과 레위인들에게 각자 맡은 직분에 대해 죄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1-3절). 맡은 바 일이 크고 중할수록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도 큼니다. 고라 일당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세속적인 교만으로 제사장 직분을 권력과 명예의 자리로 알고 탐하다가 멸망당한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직분은 크든 작든 성실하게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레위인과 합동하여 성막 일을 돌보라고 명하셨습니다(2,4절).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합동 사역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주의 일은 혼자 도무지 감당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원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선물로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7절).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공로나 업적 때문에 제사장 직분을 맡긴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주의 몸 된 교회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공로로 교회의 직분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직분자는 무엇보다 이 사실을 철저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은 자랑과 교만의 자리가 아니라 봉사와 헌신의 자리이므로 주어진 직분에 감사하면서 주님께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의 직분은 자랑과 교만의 자리가 아니라 봉사와 헌신의 자리입니다.

기도 제목 / ① 나에게 직분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② 각 교구를 섬기는 '모든 교역자와 일꾼들' 에게 은혜와 능력과 건강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반역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자, 시체들로 인해 온 회중이 부정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을 깨끗케 하기 위한 수단을 주셨는데, 그것은 정결케 하는 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정결 예식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로 하여금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정결케 하는 물에 쓰이는 재를 만들기 위해 암송아지를 태웠는데, 암송아지만으로는 속죄제물로써의 기능이 불완전해서 백향목, 우슬초 등 다른 여러가지 재료들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완전한 제물이십니다. 한편, 제물을 불사르고 난 후 생겨난 재는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거하며 정결함을 입기 원하는 모든 이방인들을 정결케 하는 데 결코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충분하였습니다(10절).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데, 모든 죄인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은 유대인과 이방인, 과거와 현재의 모든 인류를 두루 정결케 하는 데 결코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는 정녕 단 한번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죄의 은총을 사모하는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차별 없이 그리고 완전하게 구원을 베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죄로부터 정결함을 얻지 못함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광스런 주님의 모습을 뵈는 그 순간까지 십자가 사역을 통해 완성된 구원의 은총을 의지하고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속죄를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죽음 이외에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기도 제목 / ① 나의 그릇 된 행동이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해지길 원합니다. ② 교회 각 분야에 봉사할 '신실한 일꾼들'을 많이 허락해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출애굽 제 40년 정월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기 위하여 신 광야 가데스에 다시 모였습니다. 이 때는 광야의 유랑 기간이 마무리되어 갈 때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마실 물이 없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시 모세에게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모세와 아론은 불신앙의 죄를 범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24절).

이 사건의 이면에는 또 다른 영적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즉 모세와 더불어 율법으로 대표되며 최초의 대제사장 직분을 수행한 아론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 함은 곧 율법으로써는 어떤 인간도 가나안(천국)에 이를 수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율법은 단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임시적이지요, 예표적으로 주어진 것일 뿐 근본적으로 구원의 수단이 되지는 못합니다(히 9:9-10). 정녕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속죄 피를 의지하는 믿음으로써만 가능한 것입니다(엡 2:8).

아론은 아들 엘르아살에게 대제사장 직분을 승계한 뒤 호르산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25-26절). 실로 죄 가운데 태어나 죄악으로 부패한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은 그가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완전할 수 없으며 또한 그 속죄 사역도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어 영원한 유일한 대제사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대 제사장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우리를 위해 영원하신 대 제사장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② 교회의 모든 일들을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좇아 행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도중에 마주친 몇몇 족속을 정복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랏을 물리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대한 갈망이 커져서 마음이 조급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돔 땅을 우회하여 홍해 쪽으로 멀리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불뱀 재앙을 내려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려 보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즉시 깨닫고 회개하였습니다(7절). 또한 그들은 모세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모세 기도에 대해 **눗뱀**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눗뱀**은 뱀의 모습이지만 맹독을 갖지 않았고, 오히려 맹독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죄인 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롬 8:3). 하지만 그리스도는 근본적으로 죄가 없으신 분이셨으며 오히려 죄인의 죄를 사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즉 **눗뱀**은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온전히 사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눗뱀**을 우뚝 세우신 것처럼 험한 세상 가운데 구원의 길로 그리스도를 우뚝 세우신 것입니다(요 3:14,15). 그런즉 오늘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 / ①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자가 없음을 늘 고백하며 살수 있도록 십자가 아래로 늘 이끌어 주옵소서. ② 이웃을 향한 구제와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 만을 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서부터 본 서의 마지막 장까지는 이스라엘 광야 여정 중 최후의 숙영지라 할 수 있는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2-24장은 이스라엘에 맞서는 이방 족속 모압의 왕인 발락이 브돌의 복술가 발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 장에는 발락이 발람을 저주하려고 초청하나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어 발람에게 엄히 경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1-14절). 두 번째로 발락이 돈을 미끼로 발람을 초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15-20절). 세 번째로 발락에게 나아가는 발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와 심지어 발람이 탄 나귀의 입술을 통해 발람이 추구해 가야 할 사명을 일깨우는 장면이 나옵니다(21-35절). 마지막으로 발락이 발람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장면(36-41절) 등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때때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거역하는 악한 무리조차도 자신의 초월적 능력을 통하여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은 이러한 초월적 사역을 통해 당신의 백성의 안전과 평안을 도모해 가십니다.

성도는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동시에 취할 수 없습니다. 발락의 신하들이 제시한 물질에 마음이 흔들리는 발람을 보십시오. 우리 주위에는 우리를 죄악으로 빠뜨리려고 하는 유혹들이 너무나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지금 받고 있는 유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신은 그 유혹을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되게 하소서.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하나님의 선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소서. ② 각 나라 가운데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모압 족속의 왕 발락의 초대를 받은(22장) 발람이 발락의 소원과는 정 반대로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린 다음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게 됩니다.

발람은 바알 신당에 일곱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을 향해 예언하는 장면이 언급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향해 저주하고자 하는 발락의 의지와는 달리 발람의 입에서는 축복의 예언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발람은 이스라엘의 우월성을 예언하고 자신의 한계에 대해 말합니다. 또 그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말합니다. 그러자 발락은 발람을 이스라엘 전체가 내려다보이는 브올 산으로 발람을 데려가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준비시킵니다. 여기서 보듯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生死禍福)을 주관하시는 분이실 뿐 아니라 인간의 의지와 입술까지도 주장하시는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간 역사의 참 주인은 그들을 친히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락과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여러 번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끊임 없이 악을 도모하였습니다. 지금 당신을 죄 가운데로 향하게 하는 것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주님이 피 흘리신 십자가 앞에 내어 놓으십시오. 지금 죄 중에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主)이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인간 역사의 참 주인 되시며 친히 주장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②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열심을 회복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앞에서는 모압의 왕 발락이 브돌의 복술가 발람을 이용하여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했으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으로 번번이 실패한 사실이 소개되었습니다(22-23장). 이제 본 장에서는 발락이 최후 노력의 일환으로 이스라엘이 모두 내려다보이는 브올 산상에 발람을 데려가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저주케 했으나 실패하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두 차례의 저주 시도(23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한 발람은 이제 하나님이 영(靈)에 감동되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즉 본 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하여 발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고 이스라엘의 번성을 선언합니다(1-13절). 이어서 발람은 메시아의 출현과 장차 이스라엘이 그 주변 국가들을 모두 패망시키리라는 사실을 예언합니다(14-25절). 이렇게 하여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발락의 악한 계획은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진정 이것은 바로 사망과 절망의 과도 가운데서도 자신의 백성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영원불변함을 말해 주는 복된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발람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의인뿐 아니라 악인의 삶에도 간섭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는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간섭하십니까? 요즘 당신의 모습 중 십자가 앞에서 변화되어야 할 부분은 없습니까?

십자가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에 대해 절대 확신을 가진 자가 되게 하소서. ② 단기선교를 통해 전교회가 하나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장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때문에 거짓 술사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데 실패했습니다(22-24장). 그렇다고 문제가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보다 더 심각하고 치명적인 도전이 닥쳐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입성 바로 직전에 야영했던 숙영지 싯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함으로써 그들의 영혼과 육신에 치명적인 범죄를 자행했습니다(1-5절). 이어 이스라엘의 부패에 분노한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위해 용기 있는 행동을 합니다(6-15절). 뒤이어 이스라엘을 음란케 했던 미디안 족속을 멸망을 멸망시키라고 모세에게 명하십니다(16-18절).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영혼의 순결뿐만 아니라 육체의 정결이 절대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타락은 곧 그 영혼과 인격 전체의 타락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백성의 몸은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고후 6:16).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순결과 동시에 육적 순결도 요구하십니다. 오늘날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죄악과 쾌락에의 유혹을 당신은 어떤 방법으로 이겨내십니까? 당신은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고전 6:18)?

하나님의 백성의 몸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우리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 앞에 내놓는 충현의 성도가 되게 하소서. ② 강기엽 단기 선교사(스리랑카)가 맡겨진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십딤에서의 음행 사건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직후, 이스라엘은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의 명에 따라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로 기업분배를 위해 인구를 계수합니다.

이 인구조사는 가데스 바네아 불평사건으로(14장)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구세대 사람들이 죽은 후 신세대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정복하고 각 지파에게 합당한 토지를 분배하기 위해서 실시한 것입니다. 본 장에는 먼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모압 평지에서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된 사실(1-4절)이 소개됩니다. 이어 그 결과에 대한 보고와 인구조사에 근거해 각 지파에게 토지를 공평히 분배하게 한 사실이 소개됩니다(52-56절). 끝으로 토지 분배에서 제외된 레위인 계수에 관한 내용이 소개됩니다.(57-62절). 인구 통계에서 특이한 점은 이스라엘의 인구 수가 두 번째 인구 조사 결과 이스라엘은 총 601,730명으로 계수되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 때(603,550명)보다 불과 1,820명밖에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광야에서 구세대의 멸절이라는 심판을 집행하시는 한편 신세대 부흥이라는 축복도 함께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끝없는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광야 여행 마지막 때까지 이스라엘 장정들의 숫자가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 지금까지 변함없이 계속되어온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이 아닙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기도 제목 / ① 각 교육위원회가 선한 청지기로써 맡은 바 모든 일에 충성하게 하소서. ②교회학교 교사들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이스라엘은 모압평지에서 실시된 두 번째 인구조사를 기점으로 서서히 광야 40년간의 유랑 생활을 종결하고 마침내 소망하던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본 장은 바로 그러한 가나안 입성을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남성 본위의 사회 질서 내에서 딸의 기업권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특수한 상황이 언급됩니다(1-11절). 즉 아들이 없는 슬로보핫의 집안의 딸들이 상속권을 주장하며 그들에게 할당된 가나안 영토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의 상속권을 인정하는 훌륭한 판례를 남기게 되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법은 형식과 의식이 아닌 사랑과 자비의 법임을 분명하게 입증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어 출애굽의 인도자인 모세의 최후가 예고되고 그를 대신하여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지명된 사실 등이 각각 소개되고 있습니다(12-23절). 한편 가나안 입성자 명단에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의 이름이 빠지고 그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은 결국 율법이 지닌 한계를 암시해 준다고 할 것입니다. 즉 율법으로 대표되는 모세의 죽음을 통해 율법으로써는 그 누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 가나안(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롬 3:20,28).

슬로보핫 딸들의 요구를 해결하는 모세의 태도를 보십시오. 여러분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 열쇠는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었다”(요 19:30)라고 말씀하신 주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모든 문제의 해결 열쇠는 십자가에 갈리신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기도 제목 / ① 각 교회학교가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되어 날로 더욱 부흥하게 하소서. ② 협력선교사(이집트의 허요셉)가 지속적으로 일하며 구체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필두로 가나안 입성에 대한 준비 작업이 본격화 됩니다. 이제 28-29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염두에 두어야 할 각종 제사 제도에 관한 계시가 주어집니다. 먼저 본 장에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할 제사(상번제)에 관한 규례(1-8절)와 안식일에 드릴 제사규례(9-10절)가 나옵니다. 이어서 매월 초에 드릴 월삭에 관한 규례(11-15절)와 유월절 제사(16-25절) 및 칠칠절 제사(26-31절)에 관한 규례들이 각각 소개되고 있습니다. 서실 이 규례들은 민수기 15장과 출애굽기 23, 29, 31장, 레위기 23장 등에 소개된 제사 규례를 총괄한 규례들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이같은 제사 규례를 세밀히 밝히신 이유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살 지라도 항상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과 교제하는 일이 가장 귀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함입니다. 사실 복과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등한히 한 채 물질과 번영만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바로 모래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허무하고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열납될 수 있는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열납하실 산 제사로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해져야 할 부분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열납하시는 산 제사를 드립시다.

기도 제목 / ① 충현의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②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특히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증보기도하는 일이 곳곳에 일어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는 매년 7월 초하룻날에 드려질 나팔절 제사에 관한 규례(1-6절), 매년 7월 10일에 드려질 속죄일 제사에 관한 규례(7-11절), 그리고 7월 15일부터 7일간 드려질 초막절 제사에 관한 규례(12-38절)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29장에 제시된 각종 제사를 반드시 지켜 행할 것을 재차 명령한 사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39-40절).

그 중에서 초막절은 모든 백성들이 자기 집을 떠나 초막을 짓고 생활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베푸셨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 규례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속죄일 다음에 이어지는 초막절은 속죄에 뒤따르는 기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속죄일에는 자기 죄를 뉘우치고 애통해야 하지만 그 후에는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기쁨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초막절 기간 동안 매일 각종 제물을 드리는 것은 광야의 장막 같은 이 세상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셋째, 다른 절기에서와 같이 초막절에도 속죄제가 드려졌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 없이는 그 어떤 제사도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매일 우리 자신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산 제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십니까? 혹 이 광야에 영원히 살 것처럼 자신의 것을 움켜쥐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기쁨을 주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도는 오직 주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늘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② '총현선교훈련원' (CMTC)을 통한 모든 훈련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는 서원에 대한 일반적인 규례(1-2절), 아비 집에 있는 어린 여자의 서원에 관한 규례(3-5절), 결혼한 여자의 서원에 관한 규례(6-8절), 과부나 이혼녀의 서원에 관한 규례(9절), 그리고 여자의 서원에 대한 남편과 아버지의 관계(10-16절)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서원은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원은 하지 않아도 전혀 허물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일단 서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신령한 약속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든 지켜야 하며 그렇지 못할 때는 그 허물에 대하여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라”(전 5:4,5)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과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육체적 욕망을 절제하고 인내하는 서원은 심로 아름다운 신앙 행위입니다. 그러나 일시적 기분에 치우쳐 서원을 남발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모두 이루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보내시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신다는 약속을 완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이토록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역시 참으로 신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주님의 영광이 되는 순종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② 농어촌의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날로 부흥하여 민족 복음화의 산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는 미디안과의 치열한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거두었지만(1-12절) 이방 우상에 오염된 미디안 여자를 살려두는 큰 실수를 범한 사실이 소개되고(13-24절), 계속해서 공평하게 전리품을 분배하는 장면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25-54절).

미디안 족속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승리는 이전에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받은 치명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인 동시에 가나안 땅에 거하는 모든 우상숭배자들을 철저히 멸망시킬 것에 대한 예표적 사건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부정과 부패를 일절 남기지 말고 모두 멸절시켜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한 조치이며 백성들을 성결케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완벽하게 미디안을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들의 눈에 좋은 대로 미디안 여자들을 살려둠으로써 크게 책망 받았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명령보다 인간의 의지나 감정이 앞설 때 거기에는 반드시 감당키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성도는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소원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이나 소원을 추구하며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되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은 행하고 또 어떤 말씀은 행하지 않는 모순 된 행동을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깨닫고 모든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자가 되는 길은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순결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② 전 주일학교가 오직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하여 놀라운 부흥을 체험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힘을 합쳐 가나안을 정복해야 할 중차대한 사명을 앞에 두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요단 동편에 머물고자 하는 이기적인 요구를 하여(1-5절), 모세가 그들을 엄히 책망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6-15절). 모세의 책망에 두 지파는 즉각 순응하는 동시에 자신들도 가나안 정복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조건을 내세우며 다시 한번 요단 동편을 분배해 달라고 요구합니다(16-32절). 모세는 그들의 재 청원을 받아들여 요단 동편 땅을 공평히 그들에게 분배합니다(33-42절).

죄 가운데 태어나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 세상에는 분쟁과 시비는 끊이지 않습니다. 이때 성도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즉시 그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진리에 겸허히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이익이 다소 침해되더라도 형제의 유익을 위해 먼저 양보할 줄 아는 미덕을 발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서있는 거룩한 존재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 부인의 길이며 이렇게 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주님을 보게 되고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자신들의 안일을 위해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길르앗 땅에 머물러 하였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을 낙심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혹 지금의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이 너무 좋아서 앞으로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가시밭길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여러분의 목숨까지도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이 세상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② 5부 예배를 통해 주의 청년들이 복음에 매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실질적으로 광야 40년 방황을 종결짓는 부분입니다. 본 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출애굽한 사실(1-4절)과 출애굽하여 시내산까지 이르는 여로(5-15절), 38년간의 광야 여정(16-36절)과 가데스에서 모압까지의 여로(37-49절)를 소개하고, 이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 시 유의할 사항과 요단 서편 땅의 분배 원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50-56절).

실로 이스라엘의 40년간의 광야 방황 경로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발자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가나안 땅 약속이 있었듯이 우리의 인생여정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며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은 38년이나 광야생활을 해야 했을까요? 첫째는 불순종 때문이며 둘째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은 불순종과 불신앙의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광야에서든 가나안에서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원주민의 풍속을 좇지 않음은 물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사모하고 말씀을 따라 살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지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 / ①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② 이 땅에 소외받는 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 경계를 정한 사실(1-15절)과 가나안 땅을 문한할 때 수고할 각 지파의 대표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16-29절). 그런데 여기 제시된 가나안 땅의 경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보다 축소된 것입니다. 이는 당시 이스라엘이 필요로 하고 관리할 수 있을 만큼의 땅만을 제공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자상한 배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 통치 원리를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의 경계를 분명하게 정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영역과 생활공간 안에서 구원 사역을 전파하시고 자기 백성이 자신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환경과 삶의 공간을 허락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 사역에 헌신하며,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삶의 처소를 일신상의 유익과 세상 열락을 위한 허탄하고 세속적인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삶의 처소와 경계를 정해주시고 이를 인정하시며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돌이켜 봅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자족하고 만족하고 사는 삶이야말로 참 행복입니다. 여러분은 이 행복을 누리면서 사십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자족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준 삶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십자가 군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1 과

살과 피

찬송 / 284장(주 예수 해변서)

본문 / 요 6:52~58

● 들어가면서(성경 말씀을 배우는 목적)

1. 성찬식에 있어서 예수의 살과 피가 지닌 의미를 배운다.
2. 성찬식에 어떻게 참여해야 할지를 배운다.

●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자신의 말로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이 것은 본문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봄으로써, 오늘의 성경공부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① 52절 :

② 53절 :

③ 54절~55절 :

④ 56절~57절 :

⑤ 58절 :

2. 다음주일 설교('살과 피')의 단원에 따른 질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려는 교훈을 나누어 보십시오.

① '예수의 주변에 있는 자들'의 단원을 읽고, 그들은 누구였으며, 왜 예수
의 주변에 모여들었으며,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돌아가면서 말해 보
십시오.

-
- ② '살과 피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의 단원을 읽고, 이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살과 피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돌아가면서 말해 보십시오.

- ③ '생명의 양식'의 단원을 읽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어떻게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지 돌아가면서 말해 보십시오.

- ④ '예수께 대한 믿음'의 단원을 읽고, 성찬의 식탁에서 여러분 각자는 예수에 대하여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말해보시고, 또한 신자가 마땅히 예수에 대하여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도 말해 보십시오.

-
- ⑤ '유일하신 구원자'의 단원을 읽고,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 각자에게 예수께서 어떻게 유일하신 구원자가 되셨는지 돌아가면서 말해 보십시오.

- ⑥ '믿음으로 나아감'의 단원을 읽고, 성찬의 식탁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돌아가면서 말해 보십시오.

●나가면서(다음의 기도제목으로 다함께 기도하기)

1. 주님께서 성찬의 식탁에서 생명의 양식을 주심을 감사하게 합니다.
2. 성찬의 식탁을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소서.

제목 :

본문 :

“그러나 너희는 주의 종으로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께 감사하라 이는 주의 종으로서는 당연한 의무이니라” (골 3:23)

“그러므로 너희는 주의 종으로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께 감사하라 이는 주의 종으로서는 당연한 의무이니라” (골 3:23)

“그러므로 너희는 주의 종으로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께 감사하라 이는 주의 종으로서는 당연한 의무이니라” (골 3:23)

한글서체

봄이 들 우삼이말 토으음말 참

한글서체 봄이 들 우삼이말 토으음말 참

0-01 봄이 들 우삼이말

(봄이 들 우삼이말 토으음말 참) 한글서체

한글서체 봄이 들 우삼이말 토으음말 참
한글서체 봄이 들 우삼이말 토으음말 참

(봄이 들 우삼이말 토으음말 참)

한글서체 봄이 들 우삼이말 토으음말 참
한글서체 봄이 들 우삼이말 토으음말 참
한글서체 봄이 들 우삼이말 토으음말 참

한글서체

제 2 과

참 믿음으로 말미암은 큰 기쁨

찬송 / 397장(주 믿는 사람 일어나)

본문 / 벰전 1:3~9

● 들어가면서(성경 말씀을 배우는 목적)

1.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운다.
2.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가져야 할 소망이 무엇인지 배운다.

●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자신의 말로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이 것은 본문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봄으로써, 오늘의 성경공부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① 3절~4절 :

② 5절~6절 : **온 도방 올곡단 이 겸사 권임마말 토으음말** ②
인사말보 해말 사판디아을 지안맛무

③ 7절 :

올곡단 이 올음말 토임자보 ②
토임 사보인사말보 해말 사판디아을 지안맛
3의 올보 해말 올미의 올음말 토임주 사

④ 8절 :

⑤ 9절 : **올곡말 토임 올곡단 이 올소 삼 올임마말 토으음말** ②
올사말보해말 사판디아을 사크주

2. 다음주일 설교(‘참 믿음으로 말미암은 큰 기쁨’)의 단원에 따른 질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려는 교훈을 나누어 보십시오.

- ① ‘흠어진 나그네들에게’의 단원을 읽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돌아가면서 말해 보십시오.

②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쁨'의 단원을 읽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무엇인지 돌아가면서 말해 보십시오.

③ '보지 않고 믿음'의 단원을 읽고,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왜 복된 것인지 돌아가면서 말해 보십시오(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말해 보십시오).

④ '믿음으로 말미암는 산 소망'의 단원을 읽고, 믿음이 어떠한 산 소망을 주는지 돌아가면서 말해보십시오.

⑤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의 단원을 읽고, 믿음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지 돌아가면서 말해 보십시오.

-
- ⑥ '참 믿음이 더해 주는 것들'의 단원을 읽고, 참 믿음이 더해 주는 것들이 무엇인지 돌아가면서 말해 보십시오.

●나가면서(다음의 기도제목으로 다함께 기도하기)

1. 믿음으로 말미암은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2. 믿음으로 말미암은 참된 소망을 가지게 하소서.

제목 :

본문 :

(마태복음 23장 1-12절) (마태복음 23장 1-12절)

마태복음 23장 1-12절
마태복음 23장 1-12절

한글 맞춤법

한글 맞춤법 제정 10주년 기념

한글 맞춤법 제정 10주년 기념

한글 맞춤법 제정 10주년 기념

(한글 맞춤법 제정 10주년 기념)

(한글 맞춤법 제정 10주년 기념)

(한글 맞춤법 제정 10주년 기념)

(한글 맞춤법 제정 10주년 기념)

(한글 맞춤법 제정 10주년 기념)

(한글 맞춤법 제정 10주년 기념)

(한글 맞춤법 제정 10주년 기념)

한글 맞춤법 제정 10주년 기념

제 3 과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서

찬송 / 383장(환난과 핍박 중에도)

본문 / 갈 5:1~6

● 들어가면서(성경 말씀을 배우는 목적)

1. 그리스도인들의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해 배운다.
2.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삶에 대해 배운다.

●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자신의 말로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이 것은 본문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봄으로써, 오늘의 성경공부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① 1절 :

② 2절 :

③ 3절 :

④ 4절 :

⑤ 5절~6절 :

2. 다음주일 설교('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서')의 단원에 따른 질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려는 교훈을 나누어 보십시오.

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 의 단원을 읽고,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돌아가면서 말해 보십시오.

②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자유'의 단원을 읽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가 왜 중요한 것인지 말해 보십시오.

③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의 단원을 읽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자유를 얻게 되었는지 돌아가면서 말해 보십시오

④ '율법에서 떠남'의 단원을 읽고,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 매여 있으면 안되는 이유를 돌아가면서 말해 보십시오.

⑤ '예식의 가치에서 떠남'의 단원을 읽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시 자체에 가치를 두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돌아가면서 말해 보십시오.

⑥ '믿음으로 굳게 서서'의 단원을 읽고, 믿음으로 좇아 기다려야 할 소망이 무엇인지 돌아가면서 말해 보십시오.

⑦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춤'의 단원을 읽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할 이유들을 돌아가면서 말해 보십시오.

●나가면서(다음의 기도제목으로 다함께 기도하기)

1. 예수께서 주신 자유를 따라 율법에서 떠난 삶을 살게 하소서.
2.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을 좇아 살게 하소서.

제목 :

본문 :

15 4 11A

요약 표 1-2

1-2-1. 1980년대 이후의 변화

1-2-2. 1980년대 이후의 변화

(표 1-2-1. 1980년대 이후의 변화)

1980년대 이후의 변화

1980년대 이후의 변화

(표 1-2-2. 1980년대 이후의 변화)

1-2-3. 1980년대 이후의 변화

1-2-4. 1980년대 이후의 변화

(표 1-2-3. 1980년대 이후의 변화)

1980년대 이후의 변화

제 4 과

죽었으나 산 자요

찬송 / 389장(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본문 / 롬 6:6~14

● 들어가면서(성경 말씀을 배우는 목적)

1. 그리스도인의 죽음과 삶에 대하여 배운다.
2.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싸움에 대하여 배운다.

●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자신의 말로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이 것은 본문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봄으로써, 오늘의 성경공부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① 6절~7절 :

① '인간의 죽음'의 단원을 읽고,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는지 돌아가면서 말해 보십시오.

② '죄에서 벗어남'의 단원을 읽고,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어떤 결과에 이르게 하는지 돌아가면서 말해 보십시오.

③ '아니요와 예'의 단원을 읽고,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여야 할 것과 거절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돌아가면서 말해 보십시오.

④ '육체를 십자가에 못박음'의 단원을 읽고, 육체를 십자가에 못박는다는 것이 어떤 뜻이고, 그것이 왜 유익한 것인지 돌아가면서 말해 보십시오.

⑤ '새로운 생활'의 단원을 읽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위하는 새로운 생활이 무엇인지 돌아가면서 말해 보십시오.

⑥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림'의 단원을 읽고, 불의의 병기와 의의 병기가 어떤 것인지 각각 돌아가면서 말해 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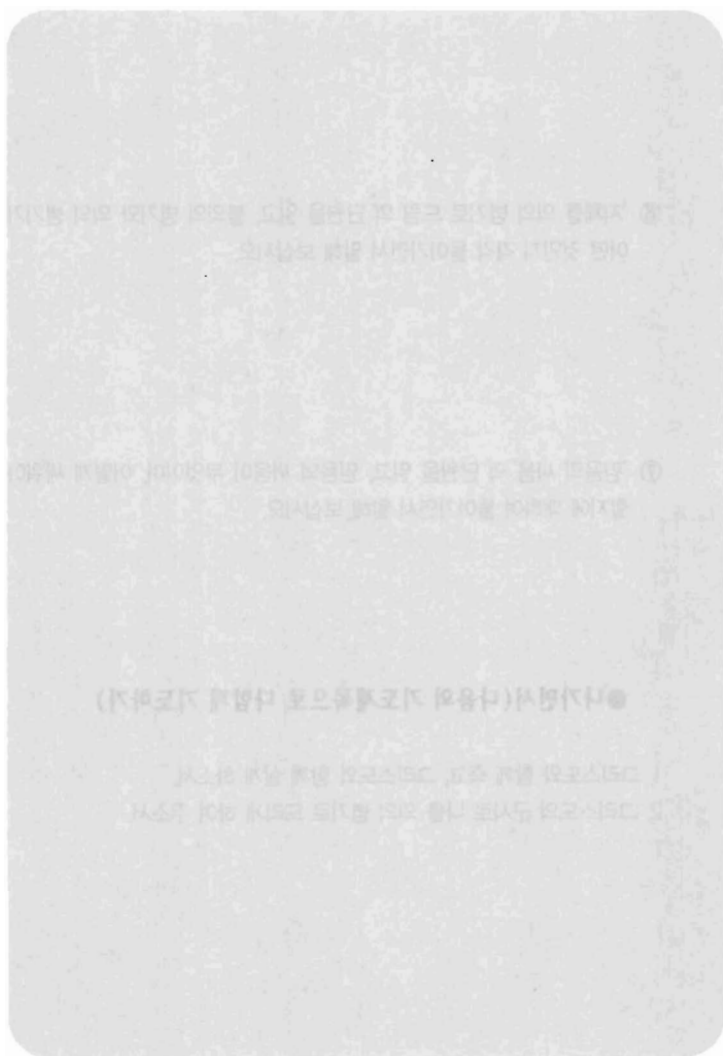
⑦ '믿음의 싸움'의 단원을 읽고, 믿음의 싸움이 무엇이며, 어떻게 싸워야 할지에 대하여 돌아가면서 말해 보십시오.

●나가면서(다음의 기도제목으로 다함께 기도하기)

1.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소서.
2. 그리스도의 군사로 나를 의의 병기로 드리게 하여 주소서.

제목:

본문:



한글 맞춤법

음운 음운

한글 맞춤법 제10조(음운)

한글 맞춤법 제10조(음운)

(한글 맞춤법 제10조(음운))한글 맞춤법

(한글 맞춤법 제10조(음운))한글 맞춤법

(한글 맞춤법 제10조(음운))한글 맞춤법

(한글 맞춤법 제10조(음운))한글 맞춤법

(한글 맞춤법 제10조(음운))한글 맞춤법

(한글 맞춤법 제10조(음운))한글 맞춤법

(한글 맞춤법 제10조(음운))한글 맞춤법

제 5 과

놀라운 복음

찬송 / 91장(슬픈 마음 있는 사람)

본문 / 살전 1:2~10

● 들어가면서(성경 말씀을 배우는 목적)

1. 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하여 배운다.
2. 복음이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배운다.

●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자신의 말로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이 것은 본문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봄으로써, 오늘의 성경공부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① 2절~4절 :

② 5절 :

③ 6절~7절 :

④ 8절

⑤ 9절~10절 :

2. 다음주일 설교('놀라운 복음')의 단원에 따른 질문을 통해서 성경
이 말하려는 교훈을 나누어 보십시오.

① '좋은 소식'의 단원을 읽고, 복음이 좋은 소식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돌아가면서 자신에게 연관시켜서 말해 보십시오.

② '하나님의 능력'의 단원을 읽고,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돌아가면서 말해 보십시오.

③ '변화시키는 능력'의 단원을 읽고, 복음이 인간을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모양으로 변화시키는지 돌아가면서 말해 보십시오.

④ '널리 확산됨'의 단원을 읽고, 복음이 세상 구석구석까지 널리 확산되는 이유에 대하여 돌아가면서 말해 보십시오.

본 시편을 공부한 후에도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돌아가면서 말해 보십시오.

⑤ '소망을 줌'의 단원을 읽고, 복음이 인간에게 제시하는 소망이 무엇인지 돌아가면서 말해 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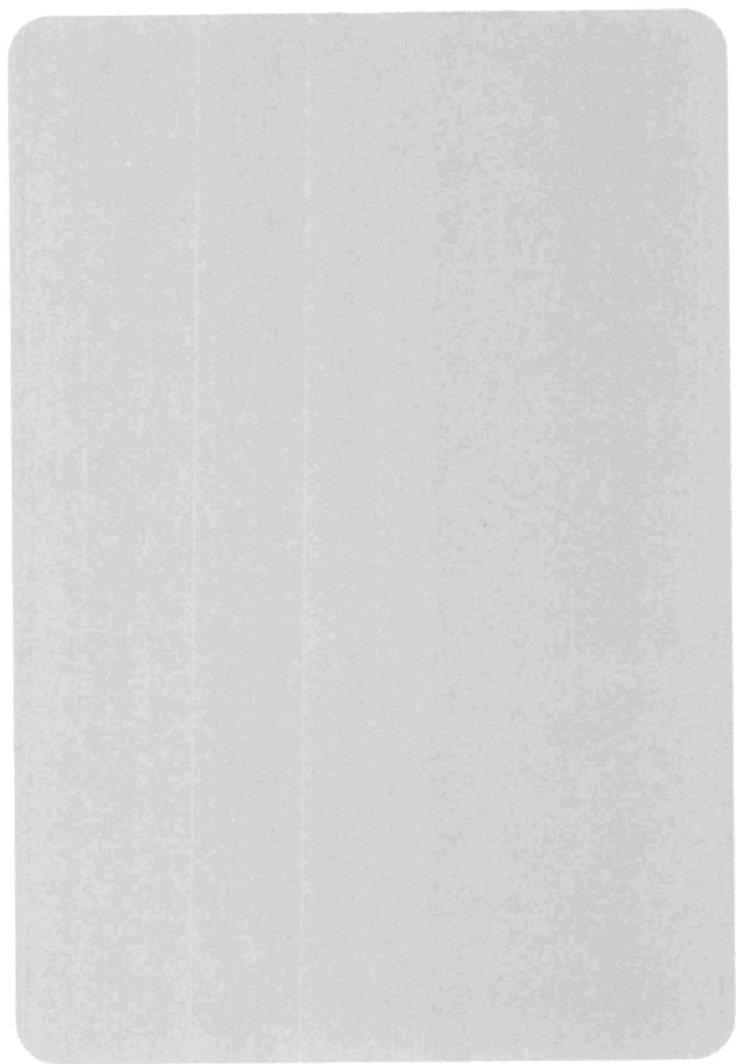
⑥ '가장 놀라운 선물'의 단원을 읽고, 복음이 인간에게 왜 가장 놀라운 선물이 되는지 돌아가면서 말해 보십시오.

●나가면서(다음의 기도제목으로 다함께 기도하기)

1.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게 하소서.
2.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제목 :

본문 :



남성도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구역공과	제4과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남성도구역공과' 는 '구역예배공과' 중 '제4과' 를 해당공과로 삼아서 공부하기로 합니다.

가정예배 안내

예배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
기도	다 같이
주기도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충현의 만나 · 2003년 5월호 · 발행인 / 김성관 · 편집인 / 노광현

· 집필진 / 만나 : 고광환(1-6일), 임현덕(7-12일), 이희식(13-18일),
최종철(19-25일), 하중철(26-31일) 목사

· 구역예배공과 : 김동하 목사

· 발행처 / 송천교회 출판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6200) 비매품